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올핸 문화 공부 어때요!

모차르트와 카라얀… 클래식 잇단 강좌

광주의 대표적인 음악감상실인 베토벤(광주시 동구 금남로)과 한울림(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서 진행되는 클래식 강좌는 이제 광주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클래식 마니아 안철씨가 진행하고 있는 클래식 강좌는 크게 영상음악회와 오페라 강좌로 나뉜다.

매주 한차례씩 진행되는 '영상음악회'(베토벤 매주 화요일, 한울림 수요일)의 2011년 테마는 모차르트다.

매달 2차례씩 모두 24회에 걸쳐 모차르트의 음악을 섭렵한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향곡을 시작으로 피아노협주곡(8회), 바이올린협주곡(3회), 플루트와 하프 협주곡 등 기악곡들을 감상하게 된다.

매달 한차례씩은 오케스트라를 이끈 유명 지.휘자 특집도 준비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을 비롯해 게오르그 솔티, 푸르드뱅글러, 이브게니 므라빈스키, 레너드 번스타인 카롤로스 클라이버 등 유명 지휘자들의 명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오페라 교실'(베토벤 화요일, 한울림 월요일)에서는 빈국립오페라단의 '피가로의 결혼', 영국로열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비제의 '카르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돈 지오반니', 파리국립오페라단의 오펜바흐의 '호프만 이야기', 라 스칼라좌의 '아이다' 등 세계 유명 오페라단의 공연 실황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베토벤에서는 '금요 영화감상회'(매월 3·4주)와 음악다큐와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금요감상회'(1·2주)도 열린다.

문의 베토벤 062-222-8410, 한울림 062-375-2214.

NEW

새해는 누구나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된다. 올해는 체계적으로 문화 공부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최근 들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인문학 강좌에 참여해 보는 것도 의미있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 감상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clas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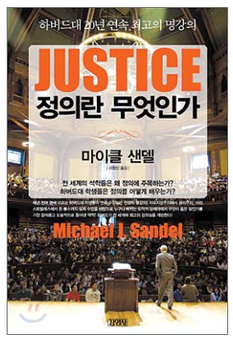
'카페 필로소피아' 인문학 강의 시작

지난해 6월 전남대 후문 하나빌딩에 작은 사무실 '카페 필로소피아' 문을 연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는 '인문학 Sailing'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강좌를 열어왔다. 이 모임에는 매회 20~25명이 참여, 인문학의 세례를 흠뻑 받았다.

2011년 강좌는 화제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시작한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60만부가 팔리고 각종 서점과 언론의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책이다. 최근에는 소설가 장정일 등이 찬사 일색이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등 논쟁중인 책이기도 하다.

7일 오후 2시 열리는 '센델의 정의론 깊이 읽기'는 전남대 정치학과 김광수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매달 첫번째 금요일에 진행하는 '인문학 Sailing'의 두번째 강좌는 철학이다. 충북대 정동호 교수가 '왜 우리는 지금 니체를 읽는가'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3월에는 고려대 윤재왕 교수가 법철학을 강의하며 4월에는 현대인들이 과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남대 물리학과 김화택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성진기 교수는 매주 월요일 빌 듀란트가 쓴 서양철학사 '철학이야기'를, 금요일에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함께 읽는다. 참가비 1만원. 문의 010-9603-32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JUSTICE

대동미술상 수상작가전

류영도·이정석 등 14명… 29일까지 대동갤러리

대동갤러리는 5~29일까지 '대동미술상 수상작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해 선정된 류영도·이정석씨를 비롯해 제1회 수상작가인 오견규·조진호·최요한씨, 제2회 수상작가 박병우·송필용·허임석, 3회 수상작가 김대연·박동신·윤의중, 4회 수상작가 서기문·임종호·한희원씨의 작품을 선보인다.

류영도씨는 달과 여자의 나체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누드 작품을 선보이고, 이정석씨는 화사한 색감으로 포착한 꽃과 여인의 모습을 선사한다.

또 서기문씨는 달리와 쉴레, 폴록, 그린버그 등 미술사의 유명 인물들의 갑작스런 동행을 한 화면에 담은 연작을 전시하고 한희원씨는 독특한 질감을 살려 마을과 언덕 풍경을 선보인다.

한편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만든 이 상은 대동갤러리가 선임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 2~3명을 뽑고,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

류영도 작 '구성-달빛사랑 Ⅱ'

광주예총회장선거 최규철·정철 출사표

제8대 광주예총 회장 선거에 최규철(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현 광주예총 회장과 정철(동신대 방송연예학과 교수) 수석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예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관표)는 3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씨 등 2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최규철〉

〈정철〉

선거는 1월 14일 오후2시부터 광주문예회관 라 플레르에서 진행되는 광주예총 정기총회 자리에서 치러지며 투표에는 음악협회 등 예총 산하 10개 협회 대의원 각 8명씩 80명과 예총 임원 14명 등 총 94명이 참여한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획득해야 회장으로 선출된다.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원로시인 범대순 새해 인사 '산하山下'

무등산 산행 1000회 기념 시집 출간

"비행기로 갈까/기차나 버스로 갈까 하다가/걸어서 가기로 하였다//소월로 갈까/두보로 갈까 셰익스피어로 갈까 하다가/걸어서 가기로 하였다//(…)//걸어서 가기로 하였다/속俗이 하늘인 산하山下를 맨발로 걸어서 가기로 하였다"('산하山下' 중)

영문학자이자 시인인 범대순(81·전남대 명예교수·사진)씨가 새해인사를 겸해 시집 '산하山下'(문학들 펴냄)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이번 시집은 그의 무등산 산행 1000회를 기념하는 작은 뜻이다.

광주에 산 50년, 특히 그가 전남대학 영문학과 교수직에서 물러난 지난 15년 동안 한 주에 2번씩 무등산에 오르면서 그의 나이 만 80에 닿는 무렵 그 1000회를 달성했다.

총 5부로 구성된 이번 시집은 그의 최근작들이다. 시집의 내용은 야성이나 자연에서 생명력을 구하는 낭만적인 것이 대부분으로 생명력을 동양적인 정중동의 방법론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번 시집에서도 범씨는 시의 구성적 측면에서 완벽성을 기하고자 노력했다. 눈에 띄게 4절로 된 시가 많고,'기승전결'의 형식을 따르려는 강한 의지가 배어있다.

범씨는 "시를 쓰는 동안 내내 산만 다닌 느낌이고, 그 산도 산중이나 산상이 아니라 늘 산하에 있으면 편하다는 느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월에 읽으세요

간행물윤리위, 분야별 도서 10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1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부키 펴냄), 한국의 역사를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전국 역사교사모임이 6년에 걸쳐 집필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휴머니스트 펴냄),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가 스스로 위로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49편의 시를 소개한 '위로'(생각속의집 펴냄)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문학과지성사 펴냄), '철학, 불평등을 말하다'(함께읽는책 펴냄) 등도 이름을 올렸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pec.or.kr)의 웹진을 통해 볼 수 있다. 문의 02-2669-07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